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 어 부가 의문문의 기능적 속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육 전공

장 재 영

영 어 부 가 의 문 문 의 기 능 적 속 성 에 관 한 연 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English
Tag Questions

2008년 8월

조 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영 어 교 육 전 공

장 재 영

영 어 부가문문의 기능적 속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장 재 영

장재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
ABSTRACT.....	iii
I. 서론.....	1
II. 부가의문문의 구조유형과 속성.....	3
2.1 부가의문문의 구조유형.....	3
2.2 부가의문문의 속성.....	5
III. 부가문의 주요기능.....	10
3.1 대립극과 동일극의 기능.....	11
3.2 담화적 기능.....	13
3.3 음조상의 기능.....	16
IV. 교과서 분석.....	20
4.1 분석 결과.....	20
4.1.1 부가의문문의 유형.....	21
4.1.2 문장의 형태.....	22
4.1.3 동사의 형태와 시제.....	23
4.1.4 주어의 인칭과 수.....	24
4.1.5 교과서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	24
4.2 교수-학습 방향.....	26
V. 결 론.....	29
참 고 문 헌.....	31
부 록.....	34

표 목 차

<표1> 부가의문문의 의미 분석과 용법.....	5
<표2> 대립극 부가의문문의 기능.....	13
<표3>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기능.....	13
<표4> 문형(sentence type)에 따른 부가의문문 유형.....	16
<표5> 확신(certainty)의 정도에 따른 부가의문문.....	18
<표6>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 분포도.....	21
<표7> 진술문의 형태별 분포.....	22
<표8> 동사에 따른 분류.....	23
<표9> 주어의 인칭과 수의 분포도.....	24

ABSTRACT

A Study o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English Tag Questions

Jae-young Jang

Advisor: Prof. Go-hee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English tag questions and to examine the type and frequency of tag questions in middle school textbook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general features and functions of English tag questions were examined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and five different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as well.

There are two theories in the syntactic approach of underlying structure: One is the study of Klima(1964) and Arbini(1969), who proposed a single sentence theory. The other is that of Huddleston(1970) who proposed a double sentence theory for tag questions. However, these theories contained syntactic defects and did not explain the formation rules of tag questions, leading to the study of the semantic approach.

According to Cattell(1973), the tag question is divided into three major types in case of a negative statement with an affirmative tag: First, if the host clause is the strong viewpoint of the speaker, it is uttered virtually like a statement usually with a falling intonation contour. The tag question,

which will also have a falling contour is added merely to invite agreement. Second, if the speaker is advancing a viewpoint, but more tentatively, the tag question has a rising intonation contour. Third, if the host clause is not represented as the viewpoint of the speaker, the tag question has a rising intonation contour, but the total pattern of intonation and stress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with wider pitch range.

Principal functions of the tag questions were examined. A tag question is composed of two major polarities: One is the matching polarity which is usually used for defiance, fury, humor, favor, astonishment, distrust, cynical remarks etc. The other is the contrasting polarity which is usually used for confirmation-seeking, agreement-seeking, suggestion, conversation continuance, conversation commencement, polite demand, doubt expression etc. The tone of the tag question is divided into rising and falling tones. A rising tone is common in a negative tag after the affirmative sentence, and requires the listener's response or their confirmation. A falling tone usually confirms the truth of the statement and accompanies some exclamatory feeling. According to the study which is about the function of intonation, the intonation form varies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textbooks were analyzed in five ways: the distribution of tag questions depending on the polarity, the statement type, the type of verb and tense, the grammatical person and figure of the subject, and the discourse functions distributed in thos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sentences with tag questions in the textbooks and the meaning of tag questions in the textbooks are limited to information requests, confirmation requests and being politeness. Except the imperative sentences, the contrasting polarity commonly appeared in the textbooks.

Currently, we can'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tag questions in communication, helping the speakers convey their meanings effectively. So this study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the various forms of tag questions is required and English textbooks should include the practical types of tag questions to help students learn to use them in real communication.

I. 서 론

국제 사회의 다변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점점 활발해져 각 국가간 의사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영어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의 유창한 대화를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발음, 문법, 어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이 절실히 요구되어 최근의 영어 교육도 언어용법(language usage) 중심에서 언어사용(language in use) 중심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언어사용(language in use)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실제 담화 속에서 발생하는 부가의문문들의 형태와 기능의 상호관련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가의문문형태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구어체 지도 즉 생활영어를 많이 강화시켰다. 생활영어 속에는 화자가 의도하거나 전달하려는 의미 즉 동의, 의견제시, 반증 등 여러 가지 표현을 부가의문문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문의 형태 즉,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지도되는 항목들은 문법적인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절과 부가절의 극에 따른 형태, 그리고 부가절의 주어와 동사 선택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제 영어 사용권에서는 부가의문문이 어떻게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못했다.

부가의문문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를 위해서는 부가의문문을 규범적(prescriptive)문제로 보지 않고 주어진 담화 속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즉, 문장 상호간(inter-sentential)의 문제로 파악하여 의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담화적 기능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의문문의 간단한 규칙은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이나 진술문과 부가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사적인 호응관계 또는 음운적인 면에서 음조상의 차이에서 오는 부가의문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을 분석해 봄으로써 부가의문문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 II장에서는 부가의문문의 구조유형과 의미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부가의문문의 주요한 기능들을 극(polarity)의 기능과 담화적 기능 그리고 음조상의 기능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IV장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극(polarity)에 따른 비율과 진술문 종류에 따른 비율, 동사적 형태와 시제에 따른 비율, 그리고 주어의 인칭과 수의 따른 교과서내의 분포도를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어떠한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부가의문문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가의문문의 학습을 도모하고자 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 정리하겠다.

Arbini는 You 생략 명령문(You deletion imperative)만 다루었으며 이 경우 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부가의문문은 “will you” 또는 “won't you”가 나온다. 그러나 Arbini의 이론에도 문제점은 있다. 첫째, Arbini는 (4)의 “You will leave early.”를 명령문으로 보았으나 명령문과 서술문 사이의 해석이 모호하다. 둘째, “will” 만이 명령문에 유일한 부가문의 조동사라는 Arbini의 이론에 (5)와 같은 반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 (5) a. Be quiet, can't you?
b. Pass me the salt, would you?

Arbini(1969)의 “will” 이외의 다른 조동사가 나와서 설명이 불가능한 명령 부가의문문은 Huddleston(1970)의 동일 동사구 삭제 이론으로 (6)과 같이 각각 설명될 수 있었다.

- (6) a. Pass me the salt, would you?
b.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그러나 Huddleston(1970)의 제안도 복합서술문과 감탄문을 포함한 tag question에 대해서는 Huddleston의 접근 방법으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7) a. I suppose that they will watch the game, won't they?
b. * I suppose that they will watch the game, won't they I suppose watch the game?³⁾
(8) a. How beautiful she is!
b. * How beautiful she is, isn't she how beautiful?

그의 이론에 따르면 부가문에서 진술문의 동일한 동사구가 생략되었다고 봤을 때 (7.a)와 (8.a)는 (7.b)와 (8.b)에서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런 통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통사론적 연구가 아닌 의미론적 연구가 이어졌다.

3) * 표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의미한다.

2.2 부가의문문의 속성

Cattell(1973)은 부가의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 (9) a. Daniel made this cake, didn't he?
 b. Yumi didn't eat it, did she?
 (10) a. Daniel made this cake, did he?
 b. Yumi didn't eat it, didn't she?

(9)처럼 주절과 부가문의 극(polarity)이 서로 다른 것을 대립극(contrasting polarity)이라 했고 (10)처럼 극(polarity)이 서로 같은 것을 동일극(matching polarity)이라 했다. Cattell은 또한 (9)와 같은 대립극(contrasting polarity)은 주절(main sentence)이 화자(speaker)의 주장을 나타내며 동의 요청의 용법(confirmation-seeking usage)으로 쓰인다고 했다. 동의 요청 용법이란 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말한 다음 청자(hearer)로부터 그 주장의 타당성에 확인을 구할 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⁴⁾

그리고 (10)과 같은 동일극(matching polarity)은 주절이 화자의 주장이 아니며 반어적 용법(ironical usage)과 되풀이 용법(echo usage)이 있다고 했다. 반어적 용법(ironical usage)이란 자기 생각과는 모순되는 말을 함으로써 빈정대는 것이며 되풀이 용법(echo usage)이란 동의 요청도 빈정대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로 단순히 상대방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표1>은 Cattell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의미 분석과 용법을 요약 한 것이다.

<표1> 부가의문문의 의미 분석과 용법

Type	극		주절의 의미	용법
	주절	부가문		
대립극	+	-	화자의 주장	동의 요청의 용법
	-	+		
동일극	+	+	화자의 주장이 아님	반어적 용법 되풀이 용법
	-	-		

4) Ray Cattell (1973),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 p.614. 본 논문에서는 matching polarity를 동일극으로 contrasting polarity를 대립극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i) 긍정 + 부정

Sally is pregnant, isn't she?

ii) 부정 + 긍정

Sally isn't pregnant, is she?

iii) 긍정 + 긍정

Sally is pregnant, is she?

iv) 부정 + 부정

Sally isn't pregnant, isn't she?

Cattell(1973:616-617)은 ii)의 “Sally isn't pregnant, is she?”와 같이 부정의 진술문에 긍정의 부가문이 있는 경우에 음조에 따라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진술문과 부가문 양쪽의 음조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진술문의 음조가 하강음조이면 진술문 ii)의 “Sally is not pregnant”가 화자의 의견이 자신이 있는 표현이고 부가의문문의 음조가 역시 하강음조일 때 동의를 요청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역시 ii)의 진술문의 음조가 하강음조이고 부가의문문의 음조가 상승음조이면 첫 번째의 경우보다 자신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진술문이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이며 부가문은 상승음조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억양과 강세의 양식은 광범위한 음조영역을 갖는 두 번째의 경우와는 다르며 의문문에 가까운 표현일 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세 번째의 경우의 의미전달은 (11.a)처럼 “by any chance”가 문중에 있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Cattell(1973)은 주장하고 있으며 (11.a) 진술문의 의미는 (11.b)와 같은 의미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11) a. Sally isn't pregnant by any chance, is she?

b. It isn't correct, by any chance, that Sally is pregnant.

Cattell(1973)은 tag polarity의 결정을 Lakeoff의 수 행동사(think, believe, guess등)가 부가문의 극(polarity)의 결정을 complement에 전가시켜 버린다고 해서 buck-passing verbs라 불렀다. 그러면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12) I don't think that they will win, will they?
 (13) I'm sure that's right, isn't it?
 (14) a. It is certain Daniel will win, won't he?
 b. Daniel will win, it is certain.
 (15) a. It seems that this meeting will never end, will it?
 b. This meeting will never end, it seems.
 (16) a. *I assert that inflation will continue, won't it?
 b. Inflation will continue, I assert.
 (17) a. I know you've been waiting a long time, haven't you?
 b. You've been waiting a long time, I know.
 (18) I'm not sure that's right, is it?
 (19) I can't see that it matters, does it?
 (20) I don't know (that, whether, if) it's very important, is it?

위와 같은 복합문의 부가의문문에서 우리는 tag이 그 앞의 complement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2~17)사이의 부가의문문에서 tag polarity가 바뀌어 졌고 (18~20)사이의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complement tag을 이끄는 술사에 대해 Hooper(1975:103,104,118)는 weak assertive verbs (think, believe, suppose, seem등)와 약간의 semi-factive verbs (know, see, notice, realize, find, be aware등)로서 의미상으로 주장(assertions)을 나타내는 1인칭 단수 현재형의 동사들이라고 주장했다.⁵⁾ 그러나 (16.a)에서 볼 수 있듯이 strong assertives 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주장하고 있는데 (13)과 (14)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4), (15), (17)에서처럼 삽입절로서 일어날 수 있는 상위문을 가진 복합문은 대개 complement tag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삽입동사(parenthetical verb)와 buck-passing verb사이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16.a)에서처럼 assert와 같은 동사는 강주장 동사인데도 complement tag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arenthetical verb와 buck-passing verb는 사실상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의미상으로 assertion을 갖는 술사가 complement tag을 형성한다는 그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며 주장의 뜻을 지닌 순수한 assertives가 삽입절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complement tag은 형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parenthetical verb는 thinking, asserting, knowing, conviction등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truth value에 관계없이 심행 또는 언행(mental or verbal act)으로서 진

5) Hooper(1975)는 [+Assertive]의 의미자질을 가진 모든 동사는 삽입절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술에 대한 화자의 입장만 나타낼 뿐 언표내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buck-passing verb는 thinking, judging, conviction, certainty, knowing 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나 주관적인 truth value만 가질 뿐 반드시 객관적인 truth value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reversed polarity(or contrasting) tag question은 먼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거의 확실한 자기의사를 표하고 그 뒤에 혹시나 하는 after-thought를 물음으로써 confirmation이나 agreement를 구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constant polarity(or matching) tag question은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자기의사를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또 after-thought로서 의심을 함으로써 negative conduciveness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arcastic meaning으로도 echo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김두식,1982:79-90).

Quirk and Greenbaum(1973:194), Quirk, et al(1985:810-8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눈다.

- (21) a. He likes his job, doesn't he?(rising tone)
- b. He doesn't like his job, does he?(rising tone)
- c. He likes his job, doesn't he?(falling tone)
- d. He doesn't like his job, does he?(falling tone)

위 문장 (21.a)는 “I assume he likes his job, am I right?”을 뜻하며 (21.b)는 “I assume he doesn't like his job, am I right?”를 뜻한다. 즉 (21.a)와 (21.b)에서 청자는 화자에게 긍정으로 대답하거나 부정으로 대답할 수도 있으며 상승억양의 부가의문문에서 불확신한 일에 대해 청자의 대답을 구하는 가벼운 의문을 나타낸다. (21.a)는 positive assumption에서 neutral expectation을 할 수 있고 (21.b)는 negative assumption에서 neutral expectation을 할 수 있다. 반면에 (21.c,d)는 청자는 화자에게 부정으로 대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하강 억양의 부가의문문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된다. positive assumption에 positive expectation이나 negative assumption에 negative expectation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Quirk, et al(1985: 810-812)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 i) Positive assumption + neutral expectation
- ii) Negative assumption + neutral expectation

iii) Positive assumption + positive expectation

iv) Negative assumption + negative expectation

그러나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진술문과 부가문이 모두 긍정이거나 부정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언제나 상승 음조이고 진술문 앞에 oh나 so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상대방이 이미 했던 말을 회상하거나 추정해서 말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때론 빈정댐을 나타내기도 한다.

(22) a. Your car is outside, is it?

b. You have had a car accident, have you?

c. The game is next Thursday, is it?

d. So, you are not coming, aren't you?

e. Oh, so you didn't read my letters, didn't you?

그러므로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다음 두 가지를 추가 할 수 있다.

v) Positive + positive → So, he likes his job, does he?

vi) Negative + negative → So, he doesn't like his job, doesn't he?

Ⅲ. 부가의문문의 주요기능

Brown과 Levinson (1978: 60)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에서 파생된 언어적 용법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부가의문문이 분명히 그러한 용법들이라 했다. 그러므로 첫 질문은 “도대체 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가?”이다. 가장 분명한 부가의문문의 특징은 많은 언어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잉여성일 것이다.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 수준의 답은 부가 의문문이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 그 모두의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이 위치한 발화의 언표내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Searle(1976:5)은 발화들이 같은 언표내적 목표를 가지더라도 다른 강도로 표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가의문문은 부가의문문이 아닌 형식의 발화가 가지는 언표내적 효력을 가감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라 했다.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예시들의 개괄적인 특징은 Searle(1976)의 분류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23) a. That's very strange.
b. That's very strange, isn't it?
- (24) a. Sit down.
b. Sit down, won't you?
- (25) a. Have you finished?
b. Have you finished, have you?

아주 포괄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살펴보면, (23.a)는 표현된 명제에 사실성을 화자가 의미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23.b)의 부가의문문은 분명히 화자가 진술된 명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를 약화시킨다. 부가의문문은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의 힘을 약화시킨다. (24.a)대 (24.b)와 (25.a)대 (25.b)에서도 유사하게 부가의문문은 (b)형식들의 언표내적 힘을 (a)형식들에 비하여 약화시킨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은 담화 속에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장에서는 부가의문문이 담화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3.1 대립극과 동일극의 기능

Holmes(1983: 53)는 부가의문문은 청자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응답을 유도하며 대화를 이끌어 내거나 그 대화를 계속하게 하는데 사용되어 지고 주로 응답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며 청자 지향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화유도 부가의문문의 전형적인 예가 다음 예문에서 보여 진다.

(26) Ray had some bad luck, didn't you Ray?"

이 문장은 Ray에게서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화자(speaker)는 자신의 말이 틀림없이 맞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발언은 어떠한 의심도 나타내지 않는다. 단지 이 문장에서의 부가의문문은 Ray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부가의문문이 대화에서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된 유사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부가의문문은 대화를 원활히 해주는 장치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담화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부가의문문은 다른 이들을 대화속으로 이끌고 그들의 대화를 장려해주는 보조적인 언어장치역할을 한다.

Frank(1972: 90-91)는 부가의문문을 진술에 대한 동의의 기대라고 말하고 Quirk & Greenbaum(1973:194-195)은 부가절이 붙는 진술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혹은 억양이 상승조인가 하강조인가 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 형태로 부가의문문을 분류하고 있다. 상승조의 부가의문문은 긍정 진술문과 부정 진술문에 각각 중립에 가까운 기대를 갖는 두 가지 형태와 하강조의 부가의문문은 긍정 진술문에는 긍정의 기대, 부정 진술문에는 부정의 기대를 갖는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하강조의 부가절은 진술의 확인을 요청하고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 주장의 힘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Quirk & Greenbaum(1973:195)은 동일극 부가의문문에 관해 음조(tone)가 빈정거리거나 의심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그런 부가절들은 흔히 앞에 Oh 또는 So가 와서 이미 말한 부분을 회상하거나 추정해서 말을 할때 주로 사용되고 때론 빈정담을 나타낸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7) So that's your little game, is it?

Leech and Svartvik(1975:112-113, 133)은 부가 의문문의 기능에 관해서 Quirk and Greenbaum(1978)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대립극의 부가의문문

은 두 가지 인토네이션(intonation)을 가진다고 하였고, 동일극의 부가문이 빈정거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8)은 왜 또 왔냐는 빈정대는 어조이다.

(28) You came again, did you?

Praninskas(1975:218)는 부가의문문은 문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거나 화자가 자기의 진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확인을 요구하는데 쓰인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은 인토네이션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 즉 (29.a)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고 (29.b)는 확인요구이다.

(29) a. You live in Seoul, don't you? (Falling tone)

b. You live in Seoul, don't you? (Rising tone)

Hayden, pilgrim and Haggard(1956:15)는 부가문의 기능에서는 단지 기대한 답의 표현이라고 하였고 긍정의 진술문으로 시작한 부가의문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자의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It's beautiful, isn't it?”에 대한 응답으로 “Yes, it is”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It's not beautiful, is it?”의 대한 응답으로 “No, it's not”을 기대한다. 그러나 응답을 하는 사람은 동의(agreement)나 비동의(disagreement)를 나타낼 수도 있다.

Danielson and Hayden(1973:27-28)은 하강조의 대립극 부가의문문은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위해 자주 쓰인다고 하고 동일극 부가의문문은 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서 놀라움, 친근함, 호의, 유머, 분노 혹은 빈정거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Dotty and Ross(1973:117-118)는 동의 요청의 부가의문문(Falling Intonation)과 정보 요구의 부가의문문(Rising Intonation)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두 종류는 모두 네 가지 즉 i) 대화의 시작 ii) 정보요구 iii) 동의 요청 iv) 진술에 대한 의심을 표시하는데 쓰인다고 했다.

Nässlin(1984)은 부가의문문은 담화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동의 요청 두 번째는 정보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신 표현이다.

Burgess(1978)는 동일극의 여러 부가의문문들이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앞 부분의 진술에 도전하기위해 빈정거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했다.

Lakoff(1973:45-81)는 화자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자신이 없다고 판단 되면 부가 의문문이 사용된다고 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부가의문문을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대립극 부가의문문의 기능

동의 요청	Frank, Dotty & Ross, Nässlin
확인 요청	Quirk & Greenbaum, Praninskas
의견 제시	Quirk & Greenbaum
대화 지속	Praninskas
특정의 회답기대	Danielson & Hayden, Pilgrim, Haggard
대화의 시작	Danielson & Hayden, Dotty & Ross
공손한 요구	Dotty & Ross
의심과 불확실성의 표현	Dotty & Ross, Lakoff, Nässlin
정보요구	Nässlin
대화유도	Holmes
청자설득	Holmes

<표3> 동일극 부가의문문의 기능

빈정거리기	Quirk & Greenbaum, Danielson & Hayden, Burgess
의심표시	Quirk & Greenbaum
추론에 의한 결론	Quirk & Greenbaum
놀라움	Danielson & Hayden
친근과 호의	Danielson & Hayden
유머	Danielson & Hayden
노여움	Danielson & Hayden
도전	Burgess

3.2 담화적 기능

Holmes(1983:40-65)는 담화적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i) 유대표현(expressing solidarity) 이 범주에는 첫 번째 대화유도(facilitating)기능 즉 청자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응답을 유도하며 대화를 이끌어 내거나 그 대화를 계속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며 청자 지향적인 기능이다. 두 번째는 대화촉진(prodding)기능인데 이 기능은 청자 입장에서 화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해하고 그 대화가 흥미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가의문문이다. 세 번째는 개인중심 전환(personal-centre switch)이고 이 기능은 청자를 공동 참여자로 요구하고 화자가 동일감을 표현 하고자 사용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동의유도(responsive)는 청자의 응답으로 화자에게 열렬한 동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다. 문(30)은

그 기능의 적절한 예이다.

- (30) Glorious: Her performance in Rigoletto was outstanding.
Tammy: Yes, wasn't it?

다섯 번째는 집단 내 동일성 표시(in-group identity marker)이며 이 기능은 특정 부류의 집단이 그들이 만들어낸 부가어를 그들의 어떤 집단내의 표시어로 사용한 다는 것이다. 다음(31) 예문을 보자.

- (31) a. Amazing life, eh?
b. That would be quite good, eh?
c. Trees give us pure air, eh?

이 “eh”라는 단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시골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가어이며 그들만의 동일성 표시로서의 기능을 한다. ii) 유대호소(appealing to solidarity) 이 기능은 일치표현 기능과는 달리 청자에게 대화를 유도 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는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iii) 유대 보호(protecting solidarity) 자칫 협박이나 비판으로 해석 될 수 있는 혹은 어떤 경우에는 화자에게 불쾌 할 수 있는 발언의 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 발언의 주장이나 힘을 줄임으로써 그 발언을 더 수용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 (32) Tell me something you want to write about, would you?

이 발언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글짓기 시간에 글을 적기 전에 내용을 물어보면서 뒤에 “would you?”를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의 발언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였다.

Berninger & Garvey(1980: 154)는 부가의문문의 형태를 축약된 의문형의 절 “is he?”와 의문표현 “right?, okay?”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들은 전자를 문법적으로 생략된 부가 구조(elliptical tag construction)라고 하고 후자를 전자와 같이 문법에 의해서라기보다 관습이나 인습에 의한 일상적 반응에서 나온 대안적 형태들 “okay, right, or huh” 등을 고정적 부가 구조(stereotypical tag construction)라고 부르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담화 기능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 (33) a. Information : I don't feel like playing, do you? ↗
 b. Agreement : Yes, we do need it, don't we? ↘
 c. Permission : I'll hold your teddy bear, O.K?
 d. Compliance : Call the police, O.K?
 e. Verbal response : You like raising ↗ huh?
 f. Attention : Oh, uh um before something was hooking on, see?

위에서 정보 요청(information request)과 동의 요청(agreement request)은 생략적 부가 구조 (elliptical tag construction)에 의해서 표현되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마지막 억양의 방향에 의해 표시된다.

(34) Oh, there's nothing to do, is there?

문장 (34)를 끝을 올려 읽으면 청자가 화자의 주장에 관한 그의 견해를 제공하길 요청하는 것이고, 끝을 내려서 읽으면 청자로 하여금 그 주장에 동의하고 말로 그 동의를 확실하게 해주길 요구한다.

억양에 따라 부가의문문이 정보요청이나 동의요청 등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은 음운론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의미들 외에 (33) c, d, e, 그리고 f와 같이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하는 부가절의 형태 또한 대립극이 아닌 “okay?, huh?, see?”등과 같이 의사소통 상에서 자연스러운 부가문의 기능적 표현들이다.

Algeo(1988:180-187)는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보요청 부가의문문(informational tag), 확인요청 부가의문문(confirmatory tag), 구두점 부가의문문(punctuational tag), 단정적 부가의문문(peremptory tag),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적 부가의문문(aggressive tag)이다.

정보요청 부가의문문(informational tag)은 주로 상승조(raising tone)로 나타나고 정중하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화자(speaker)간의 신분이나 위치가 동등할 때 주로 나타나며 즉각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확인요청 부가의문문(confirmatory tag)은 주로 하강조(falling tone)로 나타나고 청자(hearer)에게 화자(speaker)의 말에 동의를 요구하며 화자가 대화를 계속하도록 청자로부터 반응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한다. 구두점 부가의문문(punctuational tag)은 감탄하거나 강조할 때 주로 쓰이며 청자(hearer)로부터 화자(speaker)에게 주의 집중을 요할 때 발화되어진다. 단정적 부가의문문(peremptory tag)은 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끝낼 때 사용되어지며

하강조(falling tone)로 이루어질 때는 불쾌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부가의문문(aggressive tag)은 주로 하강조(falling tone)로 이루어지며 화자(speaker)의 적대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청자(hearer)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난하는데 쓰여진다고 하였다.

즉 요약하면 정보요청 부가의문문(informational tag)과 확인요청 부가의문문(confirmatory tag)은 담화 속으로 청자(hearer)를 참여시키기 위함이고 청자(hearer)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화자(speaker)의 의도(intention)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정중함을 나타내는 표시어이기도 하다. 반면에 구두점 부가의문문(punctuational tag), 단정적 부가의문문(peremptory tag), 그리고 공격적 부가의문문(aggressive tag)은 청자(hearer)보다 우월성을 입증하기위한 화자(speaker)의 의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무례함의 표시어이다.

부가의문문은 가끔 담화속에서 권력이나 힘의 표시어으로써 나타나기도 하는데 Hudson(1975)와 Harris(1984)는 상하관계 담화 속에서 부가의문문은 동의를 강요하고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논증하였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은 단순한 언어학적 지식으로서, 문법적 규칙으로 습득되는 통사적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가의문문이 음조의 변화에 따라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3.3 음조상의 기능

Holmes(1983: 49-52)는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명제의 사실을 단언하는 강도를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화자(speaker)의 주장이나 단언을 이런식으로 가감하는 까닭은 정말로 화자가 그 정보에 대한 진실성이나 확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부가의문문은 부가문의 음조(intonation)가 상승음조(raising tone) 혹은 하강음조(falling tone)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절과 관련된 부가문의 극(polarity)에 따라서 다양한 음조상의 기능을 한다. 그럼 다음 표를 확인해 보자.

<표4> 문형(sentence type)에 따른 부가의문문 유형⁶⁾

6) + : positive polarity - : negative polarity R : rising tone F : falling 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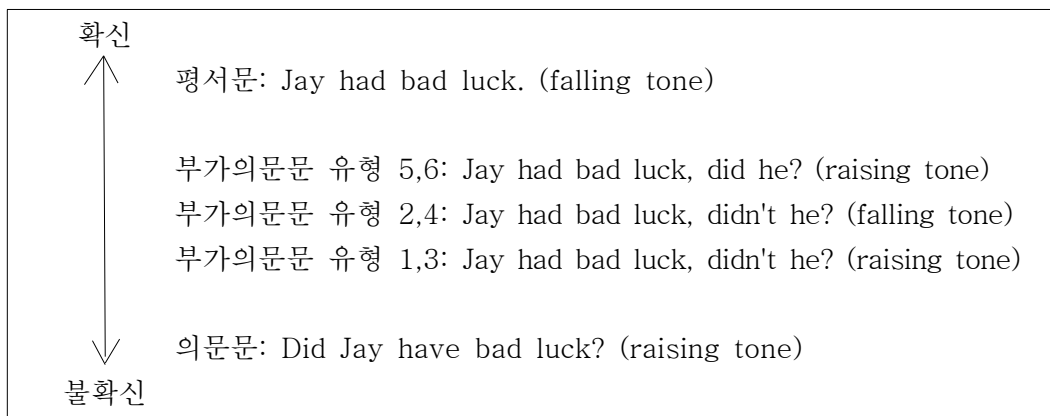
Holmes(1983)는 부가의문문을 “canonical tag”와 “invariant tag”로 분리하고 있으며 전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가의문문을 의미하고 후자는 huh?나 eh?같은 부가어를 나타낸다. Holmes(1983)는 이 표를 “canonical tag”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표가 부가의문문의 문형에 따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문형에 따른 부가의문문 유형”이라고 하였다.

T a g type	Polarity of main cluse	Polarity of tag	Intonation on tag	Examples
Declarative				
1	+	-	R	It's paper or rocks, isn't it?
2	+	-	F	That's really strange, isn't it?
3	-	+	R	That wasn't B's egg beater, was it?
4	-	+	F	There aren't many, are there?
5	+	+	R	It's still bubbling away, is it?
6	-	-	R	Oh, so you haven't touched a drop for years, haven't you?
Imperative				
7	+	-	R	a. Come in, won't you? b. Be quiet, can't you?
8	+	-	F	You will come, won't you?
9	-	+	F	Don't make a noise, will you?
10	+	+	R	Come here,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Interrogative				
11	+	+	R	a. Is she coming, is she? b. You've got the explosive, have you?

위 표에서 상승음조 부가문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절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하강조 부가문은 보다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조동사의 어휘형태는 유형 7과 10에서 설명한 보기들과 같이 긍정 명령문에 뒤따르는 “would, can, could”는 가능하지만, will을 수반하는 명령문에서는 제한적이다. 그 밖의 다른 조동사에서는 이와 같은 어휘형태상의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문문의 부가의문문은 흔하지 않지만 유형11은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Quirk, et al(1973)은 평서형 의문문에 붙은 부가문에 관한 유형11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승음조는 주절을 의문문으로 분류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의문문으로 제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혼동과 기능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유형 5와 같은 동

일극 부가의문문은 명제에 대한 화자 개인의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유형 5의 명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청자이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유형 5는 명제 내용이 단순히 되풀이 내용을 갖고 있는 “It's still bubbling away, is it still bubbling away?”의 내용이며 의문문 형태의 표현이므로 상승음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형 6과 같은 부정 진술문에 부정 부가문 형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우는 언제나 상승 음조이고 진술문 앞에 oh나 so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상대방이 이미 했던 말을 회상하거나 추정해서 말할 때 주로 사용되고 때론 빈정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5> 확신(certainty)의 정도에 따른 부가의문문



Holmes(1983: 49-52)는 부가의문문 유형 5와 6은 주절의 단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주절과 부가문 사이의 대립극보다는 동일극 사용이 최소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위와 비슷하게 부가의문문 유형 2와 4는 청자로부터 확인을 요구한다. 하강조의 사용은 화자가 청자로부터 불일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승음조를 가진 부가의문문 유형 1과 3은 2와 4보다 더 강한 확인을 요구한다. 즉 화자는 명제에 대한 더 적은 확신을 표현하고 만약 청자가 화자의 단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의문문 유형 2,4,5 그리고 6에서 보이는 부정적 반응에 비하여 그 놀라움이 적을 것이다.

앞서 말한 Praninskas(1975: 218)는 부가의문문은 대화를 계속하거나 화자가 자기의 진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확인을 요구하는 데 쓰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은 억양(intonation)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다른 음조로 표시되어진다.

- (35)
- a. You live in an a ^{part} ment, don't you?
- b. You live in an a ^{part} ment, don't you?

(35.a)는 대화를 지속하는 음조이고, (35.b)는 확인요구를 하는 음조이다.

Quirk, et al(1973)와 Huang(1980)은 부가의문문은 음조에 관계없이 정보를 요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확인 요청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음조형태가 부가의문문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진술문이 음조에 따라 화자의 주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강음조는 진술문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나 상승 음조는 화자의 진술이 약할 때 사용된다고 나타난다. 그래서 Huang(1980)에 의하면 부가의문문이 음조형태가 기능상의 차이점이기보다는 진술문의 강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 따르면 대립극 부가의문문에 대한 진술문의 음조가 하강음조이면 화자의 의견이 자신이 있는 표현이고 부가문의 음조가 역시 하강음조일 때 동의를 요청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진술문의 음조가 하강음조이고 부가문의 음조가 상승음조이면 하강음조인 경우보다 자신이 없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일극은 명제 내용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음조의 형태가 달라지지만 주로 긍정 진술문에 긍정 부가문이 오는 경우는 명제에 대한 화자 개인의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고 명제 내용이 단순히 되풀이 내용을 갖으며 항상 상승 음조로 나타난다. 그리고 부정 진술문에 부정 부가문은 언제나 상승 음조이고 상대방이 이미 했던 말을 회상하거나 추정해서 말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때론 빈정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중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부가의문문이 사용되었고 어떤 담화적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V. 교과서 분석

지금까지 영어 부가의문문의 구조유형과 속성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부가의문문은 구조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가의문문이 주로 담화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내적(intra-sentential) 문제로 보지 않고 문장 상호간(inter-sentential)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섯 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중학교 1,2,3학년 교과서 15권을 분석하였다.⁷⁾ 교과서는 주로 부가의문문의 출현빈도수와 담화적 기능을 조사 비교하였다.

4.1 분석 결과

다섯 종류의 교과서에 쓰인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를 통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부가의문문의 유형을 동일극과 대립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또한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았으며, 다음으로 부가의문문의 통사적 기능의 주체인 동사의 형태와 시제로 나누어 보았고, 주어의 인칭과 수의 따른 교과서내의 분포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어떠한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과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부가의문문의 출현빈도가 낮아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reading)이 아닌 대화(dialogue)와 듣기(listening)에 그 출현 빈도가 높아 실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부가의문문이 구어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주)교학사, (주)대한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천재교육, (주)현대영어사. 본 연구에서 (주)교학사는 A로, (주)대한교과서는 B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C로, (주)천재교육은 D로, (주)현대영어사는 E로 표시한다.

4.1.1 부가의문문의 유형

<표6>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 분포도

	A		B		C		D		E	
	동일극	대립극	동일극	대립극	동일극	대립극	동일극	대립극	동일극	대립극
긍정부 가절		15	8		4	3	10	2	6	17
부정부 가절		19		7		15		29		24

극(polarity)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분포는 동일극은 명령문의 경우에만 긍정부가절로 나타났고 명령문의 일종인 “Let's”구문은 이 교재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화 속 부가표시어는 극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분류를 따로 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용도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형식은 대립극에 부정 부가절이 첨가된 문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부가의문문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6) a. You don't like playing sports, do you?
(A, Middle School English First-grade)
 b. Lend the game CD to me, will you?
(B,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c. But I still have my head, don't I?
(C,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d. Make holes in the doughnuts, will you?
(D,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e. David likes swimming, doesn't he?
(E,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36.a)는 대립극 이면서 긍정의 부가절, (36.b)와 (36.d)는 동일극이면서 긍정의 부가절, (36.c)와 (36.e)는 대립극이면서 부정의 부가절이 쓰인 예문이다.

4.1.2 문장의 형태

<표7> 진술문의 형태별 분포

출판사 진술문형태	A	B	C	D	E
서술문	34	7	19	30	41
명령문		8	4	10	7
보문(복문)	1			2	
There문	1				

진술문은 다섯 교재에서 유형별로 서술문과 명령문, 복문(보문), There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빈도수에 있어서 서술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진술문이 여러 종류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 비중이 실제 지도에 있어서 단순히 듣기(listening)와 대화(dialogue)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교실환경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 표현은 극히 제한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37)은 교과서 진술문의 다양한 형태이다. (37.a)는 There문의 부가의문문이고, (37.b)는 담화적 부가 표시어이고, (37.c,d)는 보문의 부가의문문이다.

(37) a. There isn't much choice, is there?

(A,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b. I guess you won't be coming to my party on Saturday, huh?

(A,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c. Wash the dishes before I come home, will you?

(C,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d. It's terrible that he was murdered, isn't it?

(D,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4.1.3 동사의 형태와 시제

부가의문문의 주된 통사적 기능의 핵심인 동사를 <표8> 같이 과거, 현재완료, 현재, 미래시제로 나누어 보았고 또 Be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구분하였으며 명령문은 조동사 현재형으로 구분하였다.

<표8> 동사에 따른 분류

동사의 종류	A				B				C				D				E			
	과 거	현 재 완 료	현 재	미 래	과 거	현 재 완 료	현 재	미 래	과 거	현 재 완 료	현 재	미 래	과 거	현 재 완 료	현 재	미 래	과 거	현 재 완 료	현 재	미 래
Be 동사			16				6				11		2		9				18	
조동사				1			8				4			3	11			1	7	
일반동사	3		16		1				3		5		7		10		1		21	
계	36				15				23				42				48			

전반적으로 Be동사와 일반동사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조동사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시제의 경우 현재형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과거 형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예문은 (38)과 같다.

- (38) a. You are a student of this school, aren't you?
 (A,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b. Lend the game CD to me, will you?
 (B,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c. You didn't like English very much, did you?
 (C,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d. He can play tennis, can't he?
 (D,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e. He was mad at you, wasn't he?
 (D,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f. You have been studying very hard, haven't you?
 (E,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g. David likes reading, doesn't he?
(E,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38.a)는 Be동사의 현재형, (38.e)는 Be동사 과거형, (38.b,d)는 조동사 현재형, (38,f)는 조동사 현재완료형, (38.g)는 일반동사 현재형, (38.c)는 일반동사 과거형이 쓰인 부가의문문이다.

4.1.4 주어의 인칭과 수

<표9> 주어의 인칭과 수의 분포도

주어의 인칭	A		B		C		D		E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인칭	1				1					
2인칭	26		8		10		27		32	
3인칭	8		7		12		12	3	15	1
There	1									

전반적으로 <표9>에서 보는 것처럼 2인칭 주어의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1인칭과 각 인칭의 복수 형태는 극히 드물었으며 There문 또한 한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4.1.5 교과서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들은 어떠한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부가의문문에는 확인, 동의, 의심, 불확신, 허가, 호기심, 자신감, 설득, 공손함등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은 주로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기능, 공손한 부탁, 그리고 동의요청 기능만이 소개되어졌다. 구체적인 예문을 그것의 응답(response)과 함께 살펴보자.

(39) a. Doctor: You don't like exercising, do you?
Jim: No, but I'm on a diet.

(A, Middle School English First-grade)

- b. M: The name of this restaurant is 'George and the Dragon,' isn't it?

W: Yes, it is.

(B,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 c. M: Your apartment is on the third floor, isn't it?

W: Yeah. She must have been a ghost.

(C,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 d. Mike: You need a pen-pal, don't you?

Min-su: A pen-pal? Yes. Can you find one?

(D, Middle School English First-grade)

- e. A: It's raining outside, isn't it?

B: Yeah, I'm sure the grass will get greener after the rain.

(E,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 (40) a. Nami: It means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doesn't it?

Ted: Yes, but those are the old 3D's. The new 3D's are probably DNA, digital and design.

(A,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 b. Min-gi: It really is a small world, isn't it?

Dad: You can say that again.

(B,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 c. W: The room isn't dark, is it?

M: No, it isn't. Let me turn off the light.

(C, Middle School English First-grade)

- d. B: It's still very early, isn't it?

A: No, it's eight thirty. The news is on. Let's watch it.

(D, Middle School English First-grade)

- e. A: It's a lovely day, isn't it?

B: Yes, the sky is clear, and the sun is shining.

(E,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 (41) a. B: Lend it to me, will you?

A: Sure. When I finish reading it.

(B,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b. W: Buy some fruit and cookies for me, will you?

M: Sure, I will.

(C, Middle School English Third-grade)

c. A: I'm making doughnuts. Make holes in the doughnuts, will you?

B: Sure.

(D,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d. Mina: Send me e-mails, will you?

Yunho: I sure will.

(E, Middle School English Second-grade)

문(39)는 청자(hearer)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기능이고 (40)은 긍정적 대답을 원하는 동의요구기능이며 (41)은 화자(speaker)가 청자(hearer)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탁의 기능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들 중에서 주로 확인, 동의 그리고 공손한 부탁의 기능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지금까지 분석결과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부가의문문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극히 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들이 몇 가지 기능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담화속에서 부가의문문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교수-학습 방향 부분에서는 부가의문문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4.2 교수-학습 방향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부가의문문들은 그 비중이 실제 교수-학습에 있어서 단순히 듣기(listening)와 대화(dialogue)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듣고 이해하는 정도의 학습이나 다양한 부가의문문이 대화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환경이나 교실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 표현은 극히 제한된 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도 명령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문은 대립극이 전부였고 주절에 따라 부가절의 주어와 동사가 선택되는 다소 규범적인(prescriptive) 사항이었다. 이런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되

는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기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Berninger & Garvey(1980: 154)가 (33)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적 분류를 했던 것처럼 (42)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다루어야 실제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3) a. Information : I don't feel like playing, do you? ↗

b. Agreement : Yes, we do need it, don't we? ↘

c. Permission : I'll hold your teddy bear, O.K?

d. Compliance : Call the police, O.K?

e. Verbal response : You like raising ↗ huh?

f. Attention : Oh, uh um before something was hooking on, see?

(42) a. Daniel: They are going to refund our money, right?

Yu-mi: Yes, that's the company policy. (확인하기)

b. Daniel: She is very fat.

Yu-mi: Yes, she is also lazy, isn't she? (동의표현)

c. Daniel: She doesn't look very smart, does she?

Yu-mi: No, she is very smart. (의심표현)

d. Daniel: I don't think you were good at English test,

Yu-mi: You mean I will have the test again, yeah? (불확신표현)

e. Daniel: I'll put your book here, okay?

Yu-mi: Okay.(허가)

f. Daniel: Hey, you were in school, weren't you? what happened?

Yu-mi: Yes, I was shocked at the sight. (호기심표현)

g. Daniel: It's very stuffy. Open the window, will you?

Yu-mi: Yeap. (공손함)

h. Daniel: Let's go out for dinner, shall we?

Yu-mi: No, I'm very tired. (설득)

i. Daniel: Hey, I told you. I got in, see?

Yu-mi: Good for you. (자신감 표현)

j. Daniel: You will probably need some help with him, won't you?

Yu-mi: I think so. (확신표현)

k. Daniel: Wow, look, she did it, didn't she?

Yu-mi: Yes, she did. (주의끌기)

부가의문문은 단지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 실제 담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부가의문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사(tags)까지 학습 되어져야만 하며 그리고 음조에 따라 변하는 상황적 의미도 같이 학습되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현장에서 부가의문문을 지도할 때 규범 문법적으로 정해진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수-학습 하지 않고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의미론적 관점에서 부가의문문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교수-학습이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현 영어교육의 방향에 디딤돌이 되는 학습활동이 될 것이라 본다.

V. 결 론

부가의문문은 주로 담화문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문내적(intra-sentential) 문제로 보지 않고 문장 상호간(inter-sentential)의 문제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영어 교육 현장에서 부가의문문은 통사적 의미 측면에서 주절에 따라 부가절의 주어와 동사가 선택되는 다소 규범적인(prescriptive)것으로 이해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통사론적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을 고려하여 부가의문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과 기능을 검토하였고 또한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그것의 분포와 쓰임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부가의문문의 구조 유형을 서술 부가의문문은 Klima(1964)의 이론으로, 명령 부가의문문은 Arbini(1969)의 이론으로 하지만 (5) a. Be quiet, can't you? 와 같이 부가절에 will이외에 다른 조동사가 나와서 Arbini(1969)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명령 부가의문문은 Huddleston(1970)의 동일동사구 삭제이론으로 각각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Huddleston의 제안도 통사론적 속성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통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통사론적 연구가 아닌 의미론적 연구가 있었다. Catell(1973)은 주절과 부가절의 극에 따라 대립극, 동일극으로 나누어 의미와 기능을 설명 하였다.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중학교 5개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를 통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부가의문문의 유형을 동일극과 대립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또한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를 나누어 보았으며, 다음으로 부가의문문의 주된 통사적 기능의 핵심인 동사의 형태와 시제로 나누어 보았고, 주어의 인칭과 수의 따른 교과서내의 분포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어떠한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부가의문문은 주로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의 기능과 동의요구 기능 그리고 공손한 부탁기능만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시제의 쓰임이 매우 단순하였으며 동사의 형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형태의 쓰임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은 문장의 수도 많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에 대해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형태도 부족하였다. 지금까지의 부가의문문은 부가의문문의 규범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가의문문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의문문을 폭넓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능력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부가의문문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는 대화자들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Bibliography

- 강현주, “영어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인식태도 분석 :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두식, “부가의문문의 분석.” *Journal of Gyeosang National University*, Vol.2 No.2, (1982), pp.79-90.
- 박정희, “영어 부가의문문의 의미론적 고찰 : 현장학습의 심화과정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방정수, “영어부가의문문의 통사구조와 담화기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1.
- 안행순, “부가의문문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오무백, “부가의문문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6.
- 윤희백, “영어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응답에 관한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Vol. 6, (1990) pp.247-264
- Akamajian, Adrian & Heny, Frank.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75), pp.1-419.
- Algeo, John. "The tag question in British English." *English World-Wide* 9, (1988), pp.171-191
- Arbini, Ronald. "Tag-question and Tag-imperatives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5, (1969), pp.205-214.
- Berninger, G. & C. Garvey. "Tag constructions: structure and function in child discourse." *Child Lan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9, (1980), pp.151-168,
- Bolinger, D.L. *Meaning and Form*.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7), pp.1-212.
- Brown, G. & Yule, G.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1-288.
- Brown, P. and Levinson, S. *Questions and Pol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56-289.
- Burgess, Robert. "Tags That Do Not Show Negative Polarity." UCLA: Unpublished English 215 Paper, 1978.
- Cattell, Ray.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 *Language*, 49,

- (1973), pp.612-639(366-378).
- Danielson, Dorothy & Hayden, Rebecca. *Using English: Your Second Languag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73), pp.1-414.
- Doty, Gladys. G. & Ross, J. *Language and life in the U. S. A.* 3rd ed.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3), pp.1-163.
- Frank, Marcella. *Modern English: A Practical Reference Guid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2.
- Givon, Talmy.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pp.1-379.
- Harris, Sandra, *Questions as a mode of tag questions' cour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49, (1984), pp.47-62.
- Hayden, Rebecca, Pligrim, Dorothy W. & Haggard, Aurora Quiros. *Mastering American Englis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5.
- Holmes, Janet. "The Function of Tag Questions." *English Language Research Journal*, 3, (1983), pp.40-65.
- Hooper, Joan B. "On Assertive Predicates," in John P. Kimball(ed.) *Syntax and Semantics*, Vol.4.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Huang, J. "Negative yes/no questions in English: forms and meanings" UCLA: Unpublished English 215 paper, 1980.
- Huddleston, Rodney. "Two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Tags." *Journal of Linguistics*, 6, (1970), pp.161-215.
- Hudson, Richard. "The Meaning of Questions" *Language* 51, (1975), pp.1-32.
- Jackendoff, Ray. "On Some Questionable Arguments about Quantifiers and Negation." *Language*, 47, (1971), pp.282-297.
- Jespersen, Otto. *Essential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33), pp.1-387.
- Ketz, J. J. & Postal, P. M. *An Inter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4.
- Klima, E. S. "Negation in English." *The Structure of Language*. eds. In Fodor and Katz, (1964), pp.246-323.
- Lakoff, Robin. "A Syntactic Argument for Negative Transportation", in Pieter A. M. Seuren, *Semantic Syntax* Oxpord: Oxpord Univ. Press, 1979.
- Leech, Geoffery & Svartvik, Jan.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 London: Longman, 1975.
- Madsen, Harold. S. & Bowen, J. D. *Adaption in Language Teaching*.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8), pp.1-251.
- Nässlin, Siv. *The English Tag Ques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ockholm, 1984.
- Praninskas, Jean. *Rapid Review of english Grammar*.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5.
- Quirk, Randolph & Greenbaum, Sidney. *A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3.
- Ross, J. R. "On Declarative Sentence", *Syntactic Argumentati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79), pp.29-92.
- Searle, J.R.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976), pp.1-23.
- Stockwell, P. Robert Schachter and barbara Hall Partee.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the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Appendix

<교과서 부가의문문>

(주)교학사

Grade 1

1. You are Ted, aren't you?
2. You are So-ra, aren't you?
3. You are Paul, aren't you?
4. You always like watching TV, don't you?
5. You exercised this morning, didn't you?
6. You don't like playing sports, do you?
7. You don't like studying, do you?
8. This is his 60th birthday, isn't it?
9. You made lots of new friends, didn't you?
10. To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isn't it?
11. You are Ki-ho, aren't you?
12. That woman is your English teacher, isn't she?
13. You don't like exercising, do you?
14. You don't like walking, do you?
15. Your mom doesn't like running, does she?
16. You don't like salad, do you?
17. You don't like fast food, do you?
18. You don't like sports, do you?
19. You don't like running, do you?
20. You don't like apples, do you?
21. You don't like bananas, do you?
22. You don't like sports, do you?
23. You didn't like salad, did you?
23. You don't like basketball, do you?

Grade 2

25. It means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doesn't it?

26. There isn't much choice, is there?

Grade 3

27. You're a student of this school, aren't you?

28. You're Jane, right?

29. I guess you won't be coming to my party on Saturday, huh?

30. That's the flag of Korea, isn't it?

31. You're a student of this school, aren't you?

32. The written character "한" looks like a letter framed in a square, doesn't it?

(주)대한교과서

Grade 2

33. Lent it to me, will you?

34. Lend it to me, will you?

35. Lend the game CD to me, will you?

36. He's sick, isn't he?

37. It really is a small world, isn't it?

38. Cool, isn't it?

39. Lend the game CD to me, will you?

40. He is sick, isn't he?

41. Science is progressing very quickly, isn't it?

Grade 3

42. The time went by very quickly, didn't it?

43. The name of this restaurant is "George and the Dragon," isn't it?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Grade 1

44. It's hot, isn't it?

45. You are hungry, aren't you?

46. The room isn't dark, is it?

47. This room is very hot, isn't it?

48. It's difficult, isn't it?

49. You like computer games, don't you?

50. It's late at night, isn't it?

51. Romeo and Juliet is a sad story, isn't it?

52. Mike doesn't like computer games, does he?

53. You're good at singing, aren't you?

Grade 2

54. It'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isn't it?

Grade 3

55. Mail the letter for me, will you?

56. Mail this letter at the post office, will you?

57. Buy some fruit and cookies for me, will you?

58. Your apartment is on the third floor, isn't it?

59. You are very happy, aren't you?

60. But I still have my head, don't I?

61. Wash the dishes before I come home, will you?

62. Time does fly, doesn't it?

63. You put many different kinds of Korean seasonings on pizza, didn't you?

64. Your project helped your mother get well from her heart problem, right?
65. You didn't like English very much, did you?

(주)천재교육

Grade 1

66. You need a bicycle, don't you?
67. It's still very early, isn't it?
68. You need a pen-pal, don't you?
69. You have a pencil, don't you?
70. You also like London, don't you?
71. You need some money, don't you?

Grade 2

72. Make holes in the doughnuts, will you?
73. Lend me the book, will you?
74. Show me the camera, will you?
75. Buy me a new lunch, will you?
76. Close the window, will you?
77. Carry the books, will you?
78. Wash the dishes, will you?
79. You made a few mistakes, didn't you?
80. You've adjusted well to life in Korea, haven't you?
81. You like movies very much, don't you?
82. Sang-Mi is your best friend, isn't she?
83. John was mad at you, wasn't he?
84. Please tell me one, will you?
85. He is late for school, isn't he?
86. She likes pizza, doesn't she?
87. He can play tennis, can't he?

- 88. You watched TV last night, didn't you?
- 89. You play the piano everyday, don't you?
- 90. John played tennis yesterday, didn't he?
- 91. She doesn't like ice cream, does she?
- 92. They went to the zoo last week, didn't they?
- 93. He was mad at you, wasn't he?

Grade 3

- 94. You have studied math hard, haven't you?
- 95. This is a Sapsalgae, isn't it?
- 96. It's terrible that he was murdered, isn't it?
- 97. They aren't as friendly as dogs, are they?
- 98. You are going to plant roses in the front right corner, aren't you?
- 99. It's terrible that he was murdered, isn't it?
- 100. He's dead, right?

(주)현대영어사

Grade 1

- 101. You aren't hungry, are you?
- 102. You aren't tired, are you?
- 103. You aren't tired, are you?
- 104. You aren't cold now, are you?
- 105. You are not cold, are you?
- 106. You don't like science, do you?
- 107. You don't like taking trips, do you?
- 108. She doesn't like dancing, does she?

Grade 2

- 109. David likes swimming, doesn't he?

110. David likes reading, doesn't he?
111. This game is fun, isn't it?
112. It's a lovely day, isn't it?
113. It's raining outside, isn't it?
114. It rains very often in Jejudo, doesn't it?
115. You're an American, aren't you?
116. You're Chinese, aren't you?
117. You're a dolphin, aren't you?
118. You don't like bananas, do you?
119. You don't like apples, do you?
120. You don't like sports, do you?
121. The puppy always plays in your garden, doesn't it?
122. Get the mail for me, will you?
123. Get the newspaper for me, will you?
124. Send me the e-mails, will you?
125. Mike likes swimming, doesn't he?
126. Everything there looks beautiful, doesn't it?
127. It's a beautiful day, isn't it?
128. Flowers smell sweet, don't they?
129. You like chocolate, don't you?
130. You played tennis with Bob, didn't you?
131. You're a rose, aren't you?
132. You're an elephant, aren't you?
133. You don't like animals, do you?
134. You don't like tennis, do you?
135. You remember the opening of the Sydney Olympics, don't you?
136. This Friday is Sumi's birthday, isn't it?
137. Take your bike, Bob, and carry this apple pie over to them, will you?
138. Mira, clean up the mess for me, will you?
139. Wrap this pie, will you?
140. Clean up the mess, will you?

Grade 3

- 141. It's a lovely day, isn't it?
- 142. You've been studying very hard, haven't you?
- 143. The dancing girl is deaf, isn't she?
- 144. He's a real volunteer worker, isn't he?